(재)마포인재육성재단 2023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소집통지일자		2023.02.13.(월)	
이사정수	15명	재적이사	15명

1. 회의 개요

가. 일시: 2023.02.23.(목), 15:00~

나. 장소: 마포중앙도서관 5층 문학창작실

다. 출석임원: 총12명(이사 11명, 감사 1명)

- ❍ 선임직(6명): 박홍섭 이사장, 이성환 이사, 김영식 이사, 윤경진 이사, 최병길 이사, 고정무 이사
- ❍ 당연직(5명): 김은영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추연호 재정관리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한정우 교통건설국장
- ❍ 감사(1명): 류경현 감사

라. 결석임원: 총5명(이사 4명, 감사 1명)

- ❍ 선임직(4명): 정애주 이사, 이재흥 이사, 구영석 이사, 이세권 이사
- ❍ 감사(1명): 김덕산 감사

마. 안건

- ❍ 제1호 안건: 이사 선임
- ❍ 제2호 안건: 기본재산 운영
- ❍ 제3호 안건: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심의
- ❍ 제4호 안건: 2022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
- ❍ 제5호 안건: 2023년도 장학사업 계획 심의
- ❍ 제6호 안건: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2. 회의내용

❍ 이현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장학재단 사무국장 이현입니다. 작년 12월5일부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아직 인사를 못드린 이사님 감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사님 감사님 뜻을 받들고,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마포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박홍섭 이사장(이하 “이사장”): 지금 이 자리에 추연호 재정관리국장님이 우리 재단 당연직 이사로 취임하셔서 오늘 처음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추연호 이사님한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연호 이사: 장학재단 이사로서 의미있는 자리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사장님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 사무국장: 2023년도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에 재적이사 15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이사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개회선언과 이사회 안건에 대한 상정이 있겠습니다.

❍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이사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우리 재단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공지해 드린 6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이사님, 감사님의 고견을 듣고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이사장: 제1호 안건인 ‘이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재홍 이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물러나심에 따라서 후임 이사님으로 전 마포구의회 의장이셨던 한일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분이 마포드림즈 회원이시고 우리 장학재단에 대해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회의자료를 보시고 검토

하셔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일용 전의원님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김은영 이사: 새로 선임받으시는 이사님의 임기는 사임하시는 이사님의 남은 기간으로 되는 건가요?
- ❍ 이사장: 그렇죠. 그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재홍 이사의) 잔여임기가 2024년1월15일까지입니다. 2024년 이사회에서 다시 연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임기는 2024년1월15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이사전원: 네
- ❍ 이사장: 그러면 이재홍 이사님을 대신하여 한일용 전의원님을 장학재단 이사로 모시는 것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통과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 이사장: 제2호 안건인 기본재산 운영권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 사무국장: 기본재산 운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기본재산 120억 중 가장 큰 규모인 62억원의 ○○은행 정기예금이 3월2일 만기가 됩니다. 이 62억원의 예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의견을 주시는 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회의자료 3페이지 보시면 시중은행 금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김덕산 감사님이 채권 상품을 몇 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이사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님들의 의견을 좀 주시죠.
- ❍ 이성환 이사: 요새 우리 장학재단의 기탁금이 예전 같지 않죠?
- ❍ 사무국장: 예, 코로나 이후에 좀 줄었습니다.
- ❍ 이성환 이사: 62억이면 현재 재단 기본재산의 50%인데 감사님 보실 때 그래도 금리 차이는 나지만 제일 안정성 있는 데가 어딘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이게 10억, 20억이 아니라 우리 재산의 과반수 50%를 차지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안정성 있는 대로 예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 금리가 작년 말에 5% 정도까지 올랐다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계속 하향 추세라고 생각을 해서 24개월 정기예금 금리도 알아봤는데 대부분 12개월 금리보다는 낮았습니다.

❍ 윤호중 이사: 약간 논외 적인 얘기 같은데 ○○은행에 세 개의 예금이 있습니다. 이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 이성환 이사: 이게 작년 연초에는 이자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가장 높았을 때가 있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늦은 거에요. 작년 연말이 아주 높았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점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한 2개월만 앞섰으면 훨씬 더 이자가 높게 나오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거죠.

❍ 김은영 이사: 해약하고 다시 넣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 사무국장: 해약하면 0.1% 정도 이자를 줍니다. 정기예금이어서 일정 기간을 넣어놔야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자를 주는 방식입니다.

❍ 이인숙 이사: 지금 여기서는 ○○은행의 금리가 제일 높네요.

❍ 김은영 이사: 김덕산 감사님이 추천하신 채권상품 관련해서 이게 일반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대한 안정성은 채권을 발행하는 그 발행처에 따라서 신용도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건가요?

❍ 최병길 이사: 아주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은행도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도 5천만원밖에는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자 소득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 최병길 이사: 그러니까 지금 사실 1년 단위를 넘어가 버리면 운영 재원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문제가 있고 채권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을 많이 선호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이율 차이가 많아야 한 1% 차이거든요. 채권과 은행 차이가 1%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껄쩍지근하

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 김은영 이사: 맞아요. 설명해 주셔서 금방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은행의) 3.5%가 거의 기준으로 매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금리를 조금 조율하거나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 조금 얹어주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진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사무국장: 저희가 일단 은행마다 명목 금리를 물어봤고요.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산할 수 있는 금리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몇몇 은행이 가산금리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 이사장: 저희가 기금을 120억원을 갖고 있는데요. 왜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이사회에서 이 금융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결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역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고 나서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 생각도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기금이 300억원을 넘어야만 전문가를 붙일 수가 있다. 아니면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12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를 하든지 무슨 다른 데 투자를 하든지 간에 전문가가 따라붙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비전문가들이거든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만든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사전원: 이의 없습니다.
- 이사장: 그러면 기본재산은 이사님들 전원일치 의견을 주셔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이사장: 3호 안건은 2022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3호 안건인 2022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회의 자료하고 지금 이사님들한테 나눠드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의 2022년도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장학금 기부실적에 대하여 2022년 감사보고서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 사업수지결산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수입은 기부금 268,532,500원, 이자수입 251,393,697원, 전기이월액 528,188,623원 등을 합하여 총1,048,121,086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비로 412,086,494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83,828,907원을 사용하였으며, 목적사업준비금 등 차기이월액은 총552,205,685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보고서 5페이지 재무상태표와 6페이지 운영성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은 정관 제6조(재산의 조성) 3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목적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익잉여금 552,205,685원 중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수익금 178,230,162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고, 나머지 373,975,523원은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시 회의자료 4페이지 2022년도 장학금 기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총2,327건, 268,532,500원이 기부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기부건수는 570건 이상 늘었으나, 기부금은 6,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소액 일시기부자는 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기부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 엔데믹 시기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 재단의 활동 현황을 지역사회에 좀 더 널리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2022년 장학금 지급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216명에게 365,130,4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올해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가 그동안 아주 낮았어요. 낮아서 재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병행해서 기부금도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도네이션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는데 그래도 근간에 들어와서는 금리가 조금 오르면서 저희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금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액과 이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뜻하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전원: 이의 없습니다.

❍ 이사장: 결산서 심의를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 이사전원: 예

❍ 이사장: 감사합니다. 2022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심의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이사장: 여섯 안건 중에서 네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호 안건 2022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제4호 안건인 2022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사무국장: 제4호 안건인 ‘2022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50조 제3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 1개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받아야 합니다.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마포구청에서 지정한 3곳의 독립된 감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이 현장점검도 하며, 우리 재단의 2022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은행계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의 재무제표는 한국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감사

업체의 감사는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재단의 제10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는 문제점이 없다고 감사보고서 첫 장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2022년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감사 보고서를 한 번 보시고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경영 감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류경현 감사: 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이사장: 의견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4호 안건은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 이사전원: 예
- 이사장: 4호 안건 2022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이사장: 제5호 안건 2023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2023년도 장학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규모는 2022년도에 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장학생은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로 나누어 2회에 거쳐 장학생 종류별로 선발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발모집분야는 마포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인재육성장학생, 특기장학생, 재능장학생이며 회의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지원규모는 상반기 97명, 하반기 98명 총 195명입니다. 이에 2022년 재능장학생 13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더해 총208명에 336,5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접수 현황 및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생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병길 이사: 지금 전체 인원과 금액이 2023년도가 2022년보다 좀 작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뭐 있나요?

❍ 사무국장: 전체 규모는 같은데요. 재능장학생 포함여부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최병길 이사: 전체 금액도 좀 축소됐거든요. 근데 아마 2023년도가 2022년도보다 이자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3억6,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1,000만원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약 5,000여만원이 축소됐는데 5,000여만원이 작은 돈 같지 않습니다.

❍ 사무국장: 재능장학생은 전년도에 뽑아서 올해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2,650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규모는 3억3,650만원입니다.

❍ 최병길 이사: 그래도 약 3,000여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 이성환 이사: 재능장학생이 월50인데 12명이나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 최병길 이사: 총금액에서도 줄었어요.

❍ 사무국장: 실무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산출해서 작년 수준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 김은영 이사: 그러니까 금년도에 선발된 사람이 있고, 작년도에 선발돼서 계속 지원된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죠?

❍ 사무국장: 재능장학생이 해당됩니다.

❍ 이인숙 이사: 재능은 1년간 지원하나요?

❍ 사무국장: 1년간 지원하지만, 졸업하면 안줍니다.

❍ 이인숙 이사: 졸업할 때까지, 그러고 보니 받는 장학생들이 다르네요.

❍ 최병길 이사: 지금 보니까 장학생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2022년도에 사업수지결산표에서 보면 전기이월잉여금이 3억2,60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3억7,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차기 이월하는 금액이 더 증가되어 버렸다고요. 소위 말해서 자금이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상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차기 이월 금액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기이월금액이 더 증가하면서 인원이 총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앞뒤가 안 맞

는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은영 이사: 맞기는 한데 사무국장님 얘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3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이고, 2022년도에 재능장학생을 선발해 놓은 사람이 이 안에 합산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사무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선발해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계속 재능장학생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합쳐서 총208명이 됩니다.
- 이인숙 이사: 그러니까 13명은 올해 선발예정이고, 13명은 작년 선발이라는 것이네요.
- 김은영 이사: 당연히 더 많을 거죠. 지금 더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계속 지원되는 인원이 합산이 되어야 계산이 맞을 것 같아요.
- 이인숙 이사: 표에 나타난 숫자는 올해 선발하는 재능장학생이고, 지급액에 작년에 선발된 재능장학생 지원금액이 여기 플러스가 안되어 있을거에요.
- 이성환 이사: 작년에 지원한 사람들 숫자가 좀 적었나요?
- 사무국장: 작년에 13명이었습니다.
- 이성환 이사: 지원한 사람들이 적었죠. 그런 게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이자율이 더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이사님 여러 가지 유동성이 많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대로만 하자는 것보다도 이사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추후에 이사회에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걸로 금액을 정했으면 해요.
- 이사장: 최병길 이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은영 이사: 근데 표를 보면 재능장학생이 하반기에는 없어요.
- 사무국장: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뽑았다가 작년부터 상반기에만 뽑아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안 뽑고 상반기에만 뽑아서 1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한 번 예산도 덜 반영하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 이인숙 이사: 1년 단위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죠.
-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 김은영 이사: 근데 여기 지금 2022년 재능 장학생 13명, 1월부터 5월까지 장학금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 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사무국장: 올해 뽑을 친구들은 총195명 3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작년에 뽑은 13명 2,650만원을 플러스하면 총3억3,650만원입니다.

❍ 김은영 이사: 그렇게 되면 올해는 재능장학생은 아예 안 뽑는다는 건가요?

❍ 사무국장: 아닙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13명 선발합니다.

❍ 이사장: 사람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찾아낼 수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학생 선발권을 우리 장학재단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넘겨주는 방식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은영 이사: 국장님 이게 제가 선발 규모라고 가는 게 아니라 지원 규모로 가서 이 밑에 13명이 포함돼 있는 게 같이 전반기에 합산이 되어져야 되고 하반기에는 13명이 들어가 줘야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총 지원하는 규모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작년 회의 자료가 복잡하여 간단히 정리하여 이사님들 알기 쉽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을 드렸습니다.

❍ 김은영 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길 이사님의 의견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보다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건 조금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추연호 이사: 이건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능장학생 13명에 대해서 월5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13명에 3,2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2022년 재능장학생 13명 1월부터 5월까지 장학금 2,650만원을 포함” 이게 어디에 포함된 건지 알 수 없어요. 특별하게 재능장학생만 계산이 안 맞아요. 다른 대상은 위에서부터 딱딱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재능장학생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아까부터 계산을 해보는데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 최병길 이사: 이게 지금 재능장학생이 13명은 신규,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급해 오던 장학생은 지금 여기 여기 안 나타난 거지. 그 금액을 포함해서 4,550만

원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숨어 있는 거야 그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야.

- 사무국장: 4,550만원은 회계연도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심의 할 수가 없어서 올해 12월까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도는 게 2022년도 선발한 학생을 왜 올해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표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병길 이사: 그거는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은영 이사: 1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이 1년 한 사람이 1년을 지원을 받는다거나 상반기 대상자이기도 하고 하반기 대상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하면 연인원으로는 잡아줘도 괜찮아요. 연 인원은 그러니까 인원 수는 한 명이지만 맞아요. 연인원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 최병길 이사: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인원 플러스 신규 인원이 돼야 되거든. 그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든 그게 나와야 하는데 만약 신규만 나와 버리니까 이해하기 어렵네요.
- 이인숙 이사: 한 번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열두 달을 받으면 횟수로는 연인원이 12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숫자는 더 많아 보이는 거죠.
- 사무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정부 회계년도 1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3명 뽑고 1년 가고 다시 13명 뽑고 1년 가고 그러니까 1년에 지원하는 인원은 26명이 되는 겁니다.
- 김은영 이사: 그게 연인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 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 최병길 이사: 회계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금 실제 상황을 여기다 넣기가 어렵다면 부기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죠.
- 사무국장: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이사: 최병길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차기이월잉여금을 3억7,300만원을 이월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이자 소득이 또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장학금 지급 규모 자체가 작년도에서 이월한 금액보다도 작아요. 그거는 지금 최병길 이사님이 지적한 거랑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이자 소득이 또 120억에 대한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할 텐데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보다도 장학금 목적 사업으로 나가는 금액이 작아진다라는 건 조금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병길 이사: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회계가 정확하다고 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출을 적게 하면 다음에 또 이월될 거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안은 통과 시키되 소위 말해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한 건은 우리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한 번 더 따져보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 이사장: 지금 장학금액도 대학생들은 300만원 고등학생은 150만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대학생의 경우에 2중으로 받은 것이 체크가 되면 그걸 또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제 생각은 앞으로 대학생들은 배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고, 그 금액도 통일시켜서 딱 곱하면은 사람 숫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옳다고 생각해요.

❍ 최병길 이사: 이사장님 그 말씀은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면 못 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총 금액 안에서 선발된 사람을 조정을 할 때 그 남는 금액을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생이나 혹은 특기장학생이든 누가 됐든 그쪽 방향에 좀 더 뽑았으면 좋겠어요.

❍ 이사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최병길 이사: 무슨 얘기냐면 이제 2023년도에 총 금액을 어느 정도 범위 내로 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인원이 좀 다소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금액 범위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건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금

액과 또 우리가 지급할 장학금의 규모를 한 번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후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 이사장: 우리 이사님들 다 들으셨죠.
- 이사전원: 예
- 이사장: 그러면 최병길 이사님의 의견대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이사장: 6호 마지막 안건입니다.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재산에 들어가야 될 기부금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장학사업에 쓸 수 있어요. 6호 안건인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설명을 해주시죠.
- 사무국장: 예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재산편입예외해서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최병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지급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서 사용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의 금액보다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으면 그 금액을 늘려서라도 승인받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격의 없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성환 이사님 아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죠.
- 이성환 이사: 원래 우리 장학재단 설립할 때 이 기본재산 목표를 300억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그 목표가 없어졌는가 궁금해서요.
- 이사장: 살아 있죠 목표를 정하셨다고 그러면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다 못해서 성취를 못했다 하는 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환 이사: 우리가 그 목표의 중요성이 있으면 기본재산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이사장: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사전원: 예
❍ 이사장: 이의 없으십니까?
❍ 이사전원: 없습니다.
❍ 이사장: 그러면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은 이사님들이 전원일치 승인해 주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이사장: 이상으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 제1차 이사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견 없습니까?
❍ 이사전원: 예
❍ 이사장: 동의하십니까?
❍ 이사전원: 예
❍ 이사장: 그러면 이것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사봉 3타 =

2023년 2월 23일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